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33회, 체포와 십자가 처형, 루가복음 23장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3, 체포와 십자가형, 누가복음 23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가 복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지만, 특히 루가 복음의 본문을 면밀히 따라가며 모든 구절과 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 복음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즉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지불하기 위해 온 대가에 대한 간결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행한 일을 그래픽한 세부 사항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복음의 세부 사항, 측면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고난의 극적인 요소를 보여 주므로,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익숙한 분들은 그 영화의 많은 부분이 마가복음의 설명을 바탕으로 고난의 극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루가 복음서의 마지막 두 번째 강의에서 예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제가 할 일 중 하나는 루가가 지적했듯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복음서 저자가 이 설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강조하고, 루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데오필로와 그의 독자층 전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루가가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루가 복음서 22장부터 읽어 볼까요? 원한다면, 루가 복음서 22장의 끝 부분, 그 특정 장을 끝내는 구절인 54절부터 읽어 볼까요.

그러자 그들은 그를 붙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고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그들이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을 때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다. 그러자 하녀가 그가 빛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바라보며,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그렇지 않다. 약 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도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즉시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날들의 사건을 살펴볼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반자, 제자, 그가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 그가 기도하기 위해 물러났을 때 그와 함께 있을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 변형의 날에 그와 함께 있을 동맹 중 하나가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단어를 다시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신하다. 부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이 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너무 빨리 가서 이전 강의에서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사탄이 베드로를 체질하려 했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에게 배신하도록 선동한 사탄도 베드로를 이용해 베드로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앞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나중에 과신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떠나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역을 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 설명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식사 후 체포되었을 때, 유다가 키스를 하려고 손짓하자, 그들은 그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장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저택이었다. 일부 복음서 필자들은 이 대제사장을 가야바라고 명명했다.

누가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저녁에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22장 초반에 그들이 저녁에 유월절을 위해 모였고, 그의 체포와 모든 일이 저녁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당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추워진 듯해서 그들은 저택 한가운데에 불을 피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에워싸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했고, 예수는 대제사장의 심문을 받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베드로와 예수가 서로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건이 예수가 베드로에게 예언한 대로 전개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의 기록에서 우리는 누가가 베드로를 우리에게 제자로 묘사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크는 '따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랐고, 실제로 제자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지만, 루크는 또한 그가 제자로서 따랐지만 주저하며 따랐기 때문에 멀리서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상황은 매우 취약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추종자로 남았지만 멀리서 추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약하고 무감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장면에 없었지만 베드로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마치 루크가 우리에게 군중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아무도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어울리려고 애썼다는 것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멋지지 않았나요? 알다시피, 저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루크 복음을 읽을 때 베드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지만, 삶의 상황이 위협적일 때,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를 인기 있게 만들거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는 곳에서 거리를 두고 따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중과 어울렸을 때, 그는 여전히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충분히 가릴 수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루크는 베드로가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틀렸던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과는 달리,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부인은 한 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일부 부인은 뜰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부인은 모두 같은 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루가 복음서와 다른 세 복음서의 차이점을 강조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가 예수와 눈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예수와 눈을 마주치자 수탉이 울었고, 두 사람 모두 예수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나왔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기억. 베드로는 예수가 가르친 것과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틀거리며 예수를 부인할 수 있지만, 같은 베드로는 자신이 가르침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는 회개하고, 울고, 슬픔을 표현했고, 우리는 그가 몹시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쓰디쓴 울음은 부끄러움, 후회, 회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 남자에게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 부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기 전에, 여러분이 더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어린 소녀에게 예수를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안뜰에서 예수를 부인한 두 번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배우들은 누구일까요? 마가는 베드로가 실제로 법정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와 달리 마가는 일곱 번째 소녀, 혹은 번역을 원한다면 노예, 노예 소녀가 그에게 두 번 물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가

베드로가 예수를 두 번 부인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부인할 때, 그것은 구경꾼들의 질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우들도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일곱 번째 소녀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다른 소녀가 있었고, 세 번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두 여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는지 묻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결국, 마가복음에서 그가 이 두 소녀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나중에 예수가 마당에 없을 때 구경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경꾼들은 그가 예수를 알았는지 묻고,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배우들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말하지만,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는지 두 번 부인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를 한 번만 아는지 묻는 것으로 묘사하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종도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저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행위자들의 차이점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복음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누가가 어린 소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두려운 어른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깊은 굴욕의 행위를 하녀에게 먼저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하녀에게 예수를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남자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를 약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관찰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학생이나 신약 학자, 또는 더 많은 것을 조사하려는 호기심 많은 교회 회원으로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더 탐구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의 배우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를 촉구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부인을 촉발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루가로 돌아와서, 저는 루가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한 묘사의 프로그램적 본질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루가는 실제로 그의 설명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지 물었을 때 어린 소녀, 여자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제시합니다. 루가는 베드로가 실제로 그 경우에 예수를 독신인 사람으로 부인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경우에 한 남자가 베드로에게 왔을 때, 그 남자는 실제로 베드로가 제자 그룹에 속한 것처럼 집단 전체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배타적이거나 특정한 예수에서 예수의 그룹, 예수의 제자들로 옮겨가는데, 베드로도 그들 중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초상화를 보여주는데, 그 남자에게서 온 세 번째 질문은 그의 지역, 그의 정체성,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도, 당신도 그들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의 기원을 언급하며 정체성, 그가 온 지역을 언급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세 번이나 예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조차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와 더 광범위한 다른 사람들과 그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했습니다. 대제사장 법정에서 베드로가 코르크 롤을 만들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심각한 조롱을 겪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61절이나 63절을 읽을 때, 예수를 잡아두었던 사람들이 그를 때리면서 조롱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눈을 가린 채 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예언하라, 너를 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모독하며 그를 대적하는 다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지중해 문화 문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체포와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조롱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서 제 전 학생 중 한 명인 신부, 동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국가의 아프리카 신부는 말했습니다. 오, 미국에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부끄러운 문화가 아니라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이것은 부끄러움 없는 문화다. 이것은 자유의 땅이며 용감한 자의 고향이다.

우리는 그저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명예와 수치 문화권에서 조롱은 누군가가 당신을 찌르는 것만큼 해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여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고, 부끄럽게 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는 재판의 사건들을 마주치는 이유입니다. 수치심은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죽고 싶어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에게 행해진 일은 군중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말했듯이, 조롱에는 신체적 조롱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눈을 가리고 예언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그의 눈을 가리고, 그런 다음 눈을 가린 후, 누군가를 시켜 그를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갈릴리의 메시아라면,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그를 핵심까지 모욕하려는 시도에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그가 한 일, 즉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의 삶에서 실현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 모든 영적 사업을 거의 훼손합니다.

그들은 말로 그를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루크가 기록한 대로 온갖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온갖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무슨 짓을 했나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체포되었나요? 그에게 거짓 고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의 그의 사역이 이미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장을 살펴볼 때 지적했듯이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파괴하려고 했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살펴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들은 그를 산헤드린으로 데려올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도록 이 모든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날이 되자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회중이나 의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그들은 그를 그들의 의회로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메시아이고,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물어도, 당신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는 그의 입에서 직접 들었다.

예수는 산헤드린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빨리, 이 공의회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의회에 대해 읽었고 여러분은 산헤드린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2성전 유대교의 다양한 그룹을 소개하려고 하니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산헤드린, 즉 여기서 문제의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공의회입니다. 이 특정 그룹은 유대인의 종교와 종교적 전통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법률과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결정되고, 그들의 종교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의회는 한 번에 23명 또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도시에 있는 경우, 어떤 도시들은 자체 산헤드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니 산헤드린을 좋아한다면, 종교 문제를 결정하는 판사 그룹에는 23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모인 산헤드린인 최고 의회는 예수가 71명의 장로와 제사장들과 함께 모이게 될 곳인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성전에서 모여 종교 문제, 예수가 유대교의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존재한 연대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산헤드린의 헌법은 로마인이 점령한 후 기원전 5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인이 이 정권을 수립하고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에 대해 내릴 많은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서기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 산헤드린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 유대교 학자들은 그들이 5세기까지 권력이 제한적일 뿐 계속 존재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이 그룹은 이 기간 동안 로마법이든 관습법이든 유대교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이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법을 어긴 곳을 결정하고, 이 공의회에서 적절한 처벌이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은 안식일이나 유대인의 특별한 축제를 제외하고는 매일 낮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루가의 기록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밤에 회의를 가졌다고 제안한 기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최고 산헤드린이 실제로 밤에 회의를 가졌다고 제안할 만한 역사적 선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경우에, 그것이 매우 굉장하고 예외적이어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 모였을 때가 아니라면, 그들은 낮에 모였고, 보통 안식일에는 모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모임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성전의 방에서 모였습니다. 예수가 산헤드린으로 끌려왔을 때, 그가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 면에서 수치를 당한 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산헤드린으로 끌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읽은 것처럼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고발을 당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저는 그들의 출현과 산헤드린 앞에서의 재판에 증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5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며, 거짓 증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고 재건하겠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증언할 것이라고 듣게 될 것입니다.

루가는 그 증인들을 대화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기록에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우리가 그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그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신의 아들인지 여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는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누가의 기록에서 누가는 이 사람들이 재판 전에 예수를 어떻게 할지 이미 마음먹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당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군요. 좋아요, 저는 당신이 신의 아들의 권능의 현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오, 그럼 당신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환은 임시적이었지만 그 교환은 산헤드린이 이미 그에게 무엇을 할지 결정한 문제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그에 대해 합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통할지 보기 위해 앞뒤로 갈 것입니다. 무언가 통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중심적인 기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선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면 돌로 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선고할 위치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 중 일부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고집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빌라도에게 데려갈 것이고, 결국 빌라도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마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유월절 축제입니다. 빌라도의 궁전은 주로 카이사레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제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작은 장소에 와서 거기에 있었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한 유대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선택한 한두 사람을 용서하여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몸짓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인의

포로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신 것을 축하할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를 빌라도, 즉 산헤드린 앞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십자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서 가르치고 이곳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에 대해 들었고 그를 보고 싶어했고, 그가 행하는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길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그를 맹렬히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날 전에는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찰할 내용 중 하나는 예수가 축제 때문에 마을에 온 빌라도에게 끌려왔고, 그에 대한 3단계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가 실제로 온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에 대한 비난 수준은 그가 사람들에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관리 앞에서 이런 기소가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기소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문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온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는 로마 법학의 구조와 로마인들이 그 장소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구조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카이사르 자신에 대한 모욕이며,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필라투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카이사르의 산하가 아니더라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가장 가까운 것은 20장인데, 예수님이 동전을 받고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루카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것은 그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부인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가진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의 작품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난을 받을 만큼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잘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여기에서 논의되는 판례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대교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태수의 책상에 올라가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시민 및 형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좋은 시도지만, 그들은 고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내놓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할 것입니다.

gladi 라고 불리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사형을 선고하도록 빌라도에게 호소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에게 가해진 고발과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산헤드린 구성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했고, 갈릴리에서도 소동을 일으켰고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오, 그래 , 갈릴리를 언급했잖아. 신에게서 온 것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그래, 그럼 헤롯이 마을에 있는 거야. 헤롯은 갈릴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를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

빌라도는 사실상 이미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갈릴리를 언급했을 때 그에게 여유를 주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를 헤롯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헤롯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단에 있다면, 이날 일어나는 다른 일에 열정을 가질 것입니다. 재판의 형식이 펼쳐지고 베드로의 부인이 기억과 회개로 이어질 이 날에, 우리는 또한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두 세속적 지도자가 예수님 덕분에 친구가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헤롯의 권력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동안 헤롯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건을 헤롯에게 넘긴다는 것은 헤롯의 지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헤롯이라면, 당신은 한 번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핑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두매오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필라투스는 로마의 직접 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우리는 헤롯도 예수에 대한 특별한 사건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사들은 그의 병사들과 합류하여 예수를 조롱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비웃고, 더 많은 심리적 고문을 가하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나머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예수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모든 조직이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산헤드린에 이르기까지에서 나왔습니다. 산헤드린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범죄자나 빌라도에게 데려와야 할 사람을 그에게 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산헤드린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산헤드린 전체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 빌라도의 궁전으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말했다, 헤롯에게 가라. 헤롯은 행복했다.

그는 예수에게 우리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더 조롱합니다. 그들은 웃습니다. 그들은 그를 모욕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두 가지 카운트. 빌라도는 첫 번째로 예수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예수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비난하려던 유대 지도자들도 그저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붙을지 보려고 했지만, 23장 13절부터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모두,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함께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반란으로 감옥에 갇혔고, 도시에서 더듬거리고, 살인으로 감옥에 갇혔던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그는 그들에게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저는 그에게서 죽음을 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처벌하고 풀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주 그리스도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위해 물었지만, 그는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끌고 가는 동안, 그들은 시골에서 오는 키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얹어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온 많은 무리와 그를 위해 애도하고 애통해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결코 낳지 못하는 태와 결코 동지를 틀지 못하는 젖가슴이 복이 있다 할 날이 오리라. 그때에 그들은 산에게 우리를 따라오라, 언덕에게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그들이 나무로 이런 일을 한다면, 나무가 푸른데,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전개되는 몇 가지 일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인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하듯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누가는 빌라도가 유월절 축하의 일환으로 청중을 달래기 위해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을 용서하려 한다는 사실을 방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이 사회로 다시 풀려나는 환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 합창단에 있었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들을 위한 사면으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하다고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면을 위한 대중의 선택은 바라바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북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에서 살았던 키레네 출신의 유대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사실, 마가는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프리카인이 온다, 그를 잡아라.

제 말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인이 겪는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록에 대한 루크의 묘사 중 하나는 예수의 제자 여성들이 있었고, 키레네의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키레네 사람 시몬을 나쁜 자리에 두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길에서 쓰러진 세상의 구세주를 구원하고, 더 많은 고통과 무거움을 견뎌낼 사람이 되도록 그를 명예로운 자리에 두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강요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도록 강요당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시몬과 그 여자는 누가에게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과 관련된 사건을 강조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를 따르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여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고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을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고 예언적인 용어로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위해 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구세주, 격려자가 되셨고, 키레네 사람 시몬이 따를 만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좋아한다면, 따를 용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들이 따를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죽기를 원할 것이지만 죽음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예루살렘은 온갖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은 미리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분이 그들이 그분을 위해 애도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는 만큼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전개되는 동안, 그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다른 두 범죄자가 그와 함께 처형되기 위해 끌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마치 행렬에 혼자 있는 것처럼 다른 두 범죄자에게 끌려갔고, 그들은 그와 함께 그 장소로 끌려갔다고 언급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들이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범죄자들도 그의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씩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었고, 사람들은 곁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원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그의 택하신 자라면 자신도 구원해야 합니다.

군인들도 그를 조롱하며 다가와서 그에게 쓴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또 그의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씌어진 비문이 있더라. 그러자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 중 하나가 그를 욕하며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같은 정죄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합당한 상을 받으니라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여섯 시쯤 되었고, 아홉 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햇빛이 가득 찬 가운데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는 골고다라는 표현을 생략했고, 몰락이 섞인 포도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제공된 쓴 음료는 그를 조롱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당신이 왕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저 그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외침이 아마도 그의 목마름을 의미한다고 오해하여 그에게 마실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언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살인자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아람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마가복음에서 엘로힘, 엘로힘, 레마 사박타니 와 같은 표현을 생략합니다 . 그는 골고다와 같은 표현을 생략하고 두개골의 장소를 번역합니다.

그는 예수에게 주기 위해 몰약과 섞인 쓴 포도주를 생략했지만, 예수가 많은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십자가로 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 군중이 있었습니다. 군중은 지켜보았지만, 누가복음에서 군중은 그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웃었고, 군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한다면 식초나 신맛 나는 음료를 주었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범죄자, 그 범죄자 중 한 명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를 침묵시킵니다. 예수는 오늘 그에게 그의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있기를 요청한 사람이 낙원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태양은 여섯 시에서 아홉 시 사이에 매우 빨리 어두워질 것이고, 성전의 휘장은 찢어질 것입니다. 이 특정 강의는 지금까지 제가 한 다른 모든 강의보다 길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유지하는 동안 간결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있는 두 범죄자에게 예수는 그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범죄자 중 한 명에게 예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낙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영을 도운 그 정원, 즉 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개념적으로 하늘, 즉 신이 존재하는 장소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천국에 그와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는 어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하데스로 가셨다면, 그에 대한 당신의 이론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무슨 뜻이 신가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지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강의로는 그에 대한 철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견해와 통찰력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제 친구 중 일부가 이 특정 강의 시리즈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낙원이라는 개념은 십자가에서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제공하신 천상의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브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어를 이해하거나 말하고 슬라브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세보-크로아티아-슬라브어에는 토마토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사실 로체스터입니다. 로체스터는 요즘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땅에 있을 때 토마토라는 단어에 대해 더 많이 듣는 것은 낙원입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등 다른 유사한 슬라브어를 발견하면서 토마토를 낙원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큼니다. love apple이라는 표현에서 그렇듯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침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늘을 곁들인 신선한 빵을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토마토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에게 맛있는 토마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과 함께 할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식탁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면, 토마토에 대해 로체스터를 사용하고 낙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사과는 좋게 들리겠지만, 예수의 요점은 신과 함께하는 장소, 신의 행복의 장소입니다. 베일은 찢어질 것입니다. 베일이 왜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거나 휘장이 찢어지는 것에 대해 읽을 때, 그것은 성전의 임박한 파괴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옛 언약과 그 의식적 희생의 종말을 상징하며, 휘장이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세 번째 견해를 제안했습니다. 즉,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의 휘장이 지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 더 선호될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싶어할 것 같아서 자주 거론되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조이 그린의 말했듯이, 예수가 죽는 날에 일어난 이 특정 사건과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지구 끝까지 가는 원심적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성전의 중심성을 무력화시키고 성전을 둘러싼 상징적 세계의 파괴를 상징하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다시 말해, 성전이 찢어지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의식과 종교의 개념적 틀이 열립니다.

왕국의 진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거기서부터 계속됩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문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문은 무엇이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 교사와 성경 학생을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더 탐구할 과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 각자가 그 비문이 약간씩 달랐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비문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비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비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비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비문이 필요할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 추측하지만, 빌라도가 그런 비문을 원했던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과 요구에 쉽게 굴복한다는 잠재적인 비난을 억제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문을 거기에 두는 것은 그가 실제로 정의를 위해 나서서 유대인을 대신하여 정의를 베풀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것이 조롱거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달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요 도로를 걷다가 비문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세 번째 견해는 그 비문이 제국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억제력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로마 체제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견해입니까?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자들이 우리가 많은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견해 중 일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비문이 부분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에게 가해진 비난의 일부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비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있는 이유를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사역하십니다. 그는 무지한 살인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살인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범죄자에게 낙원에서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명령합니다.

그리고 존 그린의 말했듯이, 예수가 지상에서 보낸 이 마지막 날에, 처형의 수단으로, 그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겪을 것입니다. 그린의 지적했듯이, 십자가 처형은 특히 사악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처형 자체만큼이나 십자가 처형에 수반되는 공개적인 굴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말뚝에 묶이거나 못 박혔다고 썼다. 나무나 십자가, 피해자는 모든 장기가 온전하고 비교적 적은 출혈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 결과, 신체가 쇼크나 질식에 질식하면서 천천히, 때로는 며칠에 걸쳐 죽음이 찾아왔다.

우리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들을 그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볼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죽음에서 그 사건을 주관하는 백부장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이 확실히 무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장면에 모이는 군중이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킬 것이고, 구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장면에 여성들도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킬 것이고, 여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할 것이고, 그들은 나중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50절에서 잘 알고 있어야 할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인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회의 일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신을 내려서 리넨 수의에 싸서 아무도 묻히지 않은 돌로 깎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네 명의 주요 증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잠깐 멈춰서서 제가 끼어들게 해 주세요.

제가 이 특정 장면에 집중할 때 인내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예수의 죽음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소 강의보다 조금 더 길어질 테지만, 이것은 제가 나눌 수 없는 누가복음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입니까? 누가는 그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온 유대인 의회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며, 누가는 그가 산헤드린의 결정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립될 준비가 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또한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헤드린과 의견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치 비밀 제자 같았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수의 공개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청원했고, 시신을 린넨으로 싸서 새 무덤에 묻었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 특별한 세션이 끝나갈 무렵, 이 중요한 날과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안치될 것입니다.

조셉이 그 일을 담당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반적으로 시체는 그곳에 놓여 있다가 나중에 옮겨져 무덤이나 어딘가 계곡에 버려집니다.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시몬이 시체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린넨으로 싸서 귀중한 옷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시체를 존중히 대우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루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신을 위해 특별한 향유를 준비하려고 했던 여성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는 보통 무덤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무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시신은 보통 공동묘지에 던져져 그대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는 무덤이 가족의 탁월한 지위를 상징합니다. 이 무덤은 예수를 장사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망 있는 가문의 수장은 이런 종류의 무덤을 스스로 조각하고, 그들이 죽을 때 스스로 무덤을 조각하면 그곳에 묻힙니다. 그들의 뼈는 나중에 모아지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 묻히고, 무덤은 때때로 그 무덤을 만든 가문의 수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덤은 예수가 누워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무덤에 대한 몇 가지 사항.

첫째, 예수는 땅 아래 6피트 깊이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무덤은 바위에 새겨질 것이고,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거의 두 개의 방이 있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통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무덤의 일부로 플랫폼을 설치하고, 돌 플랫폼을 만들고, 이 돌 플랫폼은 모래로 덮일 것이고, 보통 시체는 모래로 덮은 돌 플랫폼에 1년 정도 누워 있다가 시체가 분해되면 시체를 모아 해안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무덤이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무덤에 있었고 그 전에 무덤에서 다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덤이며, 전개되는 모든 일은 이 예수와 예수에게만 전개됩니다. 고대 매장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은 예수의 몸이 모래로 덮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래로 덮인 무덤의 돌 플랫폼이 시체를 눕힐 곳이므로 시체에서 나온 체액이 분해되면서 돌 플랫폼의 모래에 가라앉고, 그들이 온 해가 지난 후에 뼈와 당신이 가져온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런 다음 납골당에 넣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바울이 그에게 왕족의 지위를 주었지만, 부활 후에 예수께서는 그 학습을 가지고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인이 와서 그 학습의 증거를 볼 것이고, 예수께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Joel Greene이 십자가 처형 장소 또는 무덤을 묘사한 방식이 마음에 들고, 이 강의를 곧 마치겠습니다. 누가가 상상한 무덤, 제가 Roger Green이라고 말했듯이, 저는 Joel Green을 의미합니다. Greene이 말했듯이, 누가의 설명에 나오는 무덤은 바위 표면의 측면을 채석하여 만들어졌는데, 무덤에는 동굴 앞에 앞마당이 있었을 수 있고, 그 입구는 아래 바위에 홈을 파서 만든 큰 원반 모양의 돌로 덮일 수 있습니다.

입구는 돌계단과 중앙 구덩이가 있는 장벽실로 이어지며, 사람들이 서서 방 옆 바위에 새겨진 돌 벤치 중 하나에 시신을 안치할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높이가 적당합니다. 예루살렘 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 그런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엘리트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의 서사에서 중요한 랜드마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께서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증인들과 함께 묻히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그들은 무덤에 봉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잠깐 멈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죽음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19장 마지막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20장에서 그가 성전에서 유대인 당국자들과 교전하고 그 장소의 당국자들에게 도전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는 군중이 예수를 배신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지만, 그를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집에서 산헤드린까지 재판한 것은 당국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그에게 아무런 혐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를 빌라도에게 제시했는데, 마치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었으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갔습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그가 스칼이라는 장소로 행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방향으로 행진하는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을 거의 암시합니다. 왜 그가 범죄자들과 동행해야 할까요? 오,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었고, 그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는 무죄하게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해럴드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도둑은
우리가 운명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무죄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긴 강의를 따라가셨을 때 , 아마 1시간 30분 정도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둑, 그 죄인과 같은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와 함께 할 곳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라고 말하는 아주 오래된 찬송가를 기억합니다. 그 찬송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약점, 죄, 그리고 단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왜 내가 그분께 항복해야
하는지. 내 희망과 기도는 당신이 나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입니다 . 그가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랬듯이, 그리고 내가 충실하게
걷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처럼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와 주셔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허락했고, 심지어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제자도에 헌신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3, 체포와 십자가형, 루가복음 23입니다.